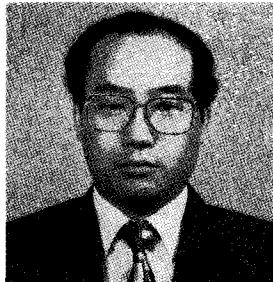


청소년을 위한 에이즈 홍보 교육방안(1)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총체적으로 대응—



권관우 /
한국
에이즈연맹
본부장

I. 서론

에이즈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2000년이 되면 4,000만 명의 감염자가 생길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에이즈는 그 특성상 기존의 어느 질병보다도 감염자와 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심하기 때문에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 가까운 친척, 친지들까지도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는 2000년이 되면 1억 5천 내지 2억 명 가량의 일차 피해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보수 문화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에이즈에 대한 물이해와 사회적 냉대까지

도 고려한다면 1인당 평균 10명 가량의 직접 피해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2000년이 되면 4,000만 명의 예상 감염자의 10배수인 4억 명 정도의 일차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1992년 12월 미국상원 재정위원회의 에이즈 문제 공청회에서 하버드 대학 다나 파바암 연구소의 헤젤다인 피트 레트로 바이러스 부장은 '에이즈는 이제 남녀간의 성교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2010년이 되면 10억 인구가 감염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제 에이즈는 단순한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 생존의 위기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이자 희망인 청소년층이 점차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되어 많이 감염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장래를 대단히 어둡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본고에서는 에이즈 근절을 위한 민간 기구인 한국에이즈연맹에서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의 위기로 다가온 에이즈와 청소년 성문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성문화 확립과 효과적인 에이즈 홍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일본, 미국 등에서의 그간의 교육 내용을 점검해 보고

우리의 올바른 교육 방향을 설정하며, 각 부문별, 교육주체별 홍보전략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더불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청소년과 에이즈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서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WHO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29세의 연령층이 가장 많이 감염되어 전체 감염자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감염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층에 대한 에이즈 예방책 마련이 절실향한 시점에 와 있다.

1993년 7월 1일 현재 국민 30.3%에 해당하는 1,337만 5,389명의 청소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관한 인식, 태도 등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중·고교생들과 에이즈

한국과학기술원 노공균 교수의 「한국 청소년의 에이즈에 관한 지식, 태도, 믿음 및 행위에 대한 연구(1993. 4. 보사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주)}

에이즈에 관한 정보 획득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TV와 인쇄매체가 정보의 주요한 근원으로 나타났으나 학생들은 허위전달의 가능성성이 가장 낮다고 느끼는 학교로부터의 정보 획득을 선호하였다.

감염 위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염자와 수업을 받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50% 이상이 넘었고 1/3 이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약수도 71%가 위험하고, 공공화장실과 수영장의 경우 90.6%와 93.8%가 에이즈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릇이나 개인용 사물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97%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모기나 곤충 그리고 인체의 땀, 의복의 공유 등도 각각 80~90% 이상의 응답자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에이즈 감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차별 및 냉대 등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행동으로 전개될 소지가 있다. 93%의 학생이 에이즈 감염자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78%의 학생이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한 사실이 바로 그릇된 이해와 차별적 감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대학생, 근로 청소년과 에이즈

고등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과 같이 대학생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에이즈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와 있다. 에이즈 정보면에서는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별 차이 없이 에이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

주) 한국의 대표적인 학생 모집단을 포함한 학교로 간주되어 선택된 주도시 지역에 위치한 비교적 큰 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임.

〈표 1〉 청소년의 에이즈에 대한 인식도

에이즈에 관한 정보의 실제 정보원과 바라는 정보원의 순위

실제 정보원천	바라는 정보원천
TV	학교
신문이나 잡지	TV
학교	의사/의료기관/종합병원
팜플렛이나 모임	신문이나 잡지

에이즈 감염의 인식된 위험에 따른 응답의 분포

인식된 위험 행동	옳음 (위험없다)	틀림 (위험하다)	인식된 위험이 매우 큰 것
에이즈 감염자와 함께 학교에 가는 것	25.0%	75.0%	33.0%
에이즈 감염자와 악수하는 것	29.0%	71.0%	20.5%
에이즈 감염자와 함께 노는 것	20.0%	80.0%	30.0%
공중 화장실의 사용	9.4%	90.6%	42.0%
수영장	6.2%	93.8%	52.5%
일상 용품이나 개인적 물건을 공유	3.0%	97.0%	76.0%
모기나 벌레에 물리는 것	12.0%	88.0%	
땀	21.3%	78.6%	
입던 옷을 입는 것	9.0%	91.0%	40.0%

이다.

「일부 대학생에 있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지식, 태도 및 관심도 조사(윤형렬, 홍대용, 이종영 등, 대한보건협회지, 1990.)」에 따르면 에이즈에 관한 태도 및 관심도 변화를 측정하는 항목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혹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에이즈에 관한 보건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91.9%, 95.3%)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식을 측정하는 항목에서는 이전에 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에서 유의한 차를 보인 항목이 많았으나 태도 및 신념의 변화를 측정한 항목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식과 행동 변화가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1992년 1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대학 신입생 6,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일부 대학 신입생들의 후천성 면역결핍

증에 관한 지식, 태도 및 관심도 조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최현림)에 따르면 에이즈에 대해 대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알고 있으나 아직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5% 이상이 에이즈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다루는 것처럼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20% 이상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또 20.7%가 자신은 에이즈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나 67.1%는 에이즈에 감염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비밀리에 간단한 혈액 검사를 실시한다면 검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에이즈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93.4%가 되었다. 에이즈에 관한 태도에서도 이중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올바른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팀이 1993년 4월 종합병원에 온 신체검사자 및 정부기관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다고 생각될 경우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이 52.2%로 이 중 83%가 에이즈 환자임이 알려졌을 경우 사회로부터의 멸시와 따돌림 때문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에이즈 전파 경로의 경우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었으나 모기(88%), 현혈(48%), 수영(36.1%), 악수(21.5%) 등에 의해서도 전파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근로 청소년 등은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전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3. 분석

이상의 청소년 학생 중심의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고교 및 대학을 막론하고 실질적인 교육 및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정보를 안다 할지라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청소년층에 있어 가장 노출되기 쉬운 감염경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근로 청소년 등 비진학 청소년은 유해환경 접촉 기회가 많고 올바른 성교육의 장이 전무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춘기 이후 나타나는 성적인 관심과 태도 및 성범죄 등이 청소년층에서 날로 증가해가는 현상에 착안하여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은 그 자체로서의 교육뿐 아니라 바른 성교육 차원에서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경쟁 심리에 의한 교육들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심성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속)